

제12권 20호

2022. 10. 4~2022. 10. 16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 | |
|---------|---|
| 논단 | 부동산 정책에 대한 소고 |
| 이슈분석 | 하나로 연결되는 나의 금융 데이터 |
| 금융경영브리프 | 왓 위민 원트? 여성 전용 은행의 등장
지구가 유일한 주주가 된 기업 |
| 금융시장모니터 | 금 리 : 주요국 고강도 긴축으로 한은 빅스텝 불가피
외 환 : 시장개입 무력화, 적수가 없는 달러화 |
| 금융지표 |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

인간

연구자는 사람⁺, 고객은 사람⁺⁺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에 기초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창조하는 것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사명입니다.



집필진

편집

연구위원 김영준(kimekono)
연구위원 안성학(shahn0330)
연구원 신석영(seokeyoung.shin)

논단

교수 이현석

이슈분석

연구위원 이기홍(kihong.lee)

금융경영브리프

연구위원 윤선영(sunyy)
수석연구원 황선경(skhwang)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수석연구원 이화정(hj_lee89)
외 환 | 연구위원 오현희(hyunheeoh)

금융지표

연구원 진옥희(okheejin)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01 **논단** 부동산 정책에 대한 소고
- 06 **이슈분석** 하나로 연결되는 나의 금융 데이터
- 10 **금융경영브리프** 앳 워민 원트? 여성 전용 은행의 등장
지구가 유일한 주주가 된 기업
- 14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주요국 고강도 긴축으로 한은 빅스텝 불가피
외 환 : 시장개입 무력화, 적수가 없는 달러화
- 18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부동산 정책에 대한 소고*

이 현 석 성신여대 경영학부 교수(lhs8283@sungshin.ac.kr)

정부의 주택정책 목표는 대부분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우선 배분,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는 공급의 증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 등을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의 변동성은 커지고 있으며, 주택 수요자는 정부 정책이 아니라 금리와 같은 거시경제 변수나 시장의 가격 전망 등을 보다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다. 주택 수요자는 주택을 소비자자산과 투자자산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우리나라 가구의 전체 자산 중 주택 보유 비중이 매우 높은 점을 생각하면 주택 정책을 수립할 때 주택의 투자 속성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

공급 중심의 주택정책

정부의 주거 안정 정책은 주로 공급과 금융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무주택자를 위한 대규모 주택 공급, 청년이나 저소득층 등을 위한 임대주택 등은 공급 정책에 해당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통한 공적자금 지원 정책 등은 금융 정책에 해당한다.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정책으로는 공시가격 인상, 다주택자 중과,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의 조세 정책, LTV의 축소와 DTI, DSR 강화 등의 금융 규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을 통한 거래 제한 정책 등이 있다.

노태우 정부는 출범 이후 높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되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3법의 도입과 함께 주택 200만 호를 공급하였다. 토지공개념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다가 향후 위헌결정을 받게 되었지만, 토지공개념 3법이 실행되었더라도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의 대규모 주택 공급이 1996년 초반까지 실질 주택 가격을 낮추도록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있다. 실질 주택 가격은 외환위기 기간과 노무현 정부 초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상승하였다. 노태우 정부의 주택 공급은 국민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소득 불평등이 완화된 시점에서 주택 수요자가 요구하는 양질의 주택 공급량을 충족시켰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대규모 주택 공급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유효한 수단임을 보여주고 있다.

공급과 금융 측면에서 접근 중인 주거 안정 정책

노태우 정부의 주택 200만호 공급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외환위기로 인해 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지 못한 김대중 정부를 제외하고, 노무현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전국 주택 공급 물량은 연평균 30만 호를 넘고 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의 연평균 공급 물량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보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실질 주택가격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매우 큰 상승률을 보였다.

대규모 공급이 아니면
공급 정책만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한계

각 정부의 주택 공급량과 주택 가격 사이의 관계를 통해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주택 수요자의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노태우 정부와 같은 대규모 공급이 아니면 주택 공급 정책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노태우 정부는 1기 신도시 사업을 통해 많은 주택을 공급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1기 신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공영개발을 주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그 이후 대규모 공영개발이 어려워지면서 택지 공급은 민간이 주도하는 체제로 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노태우 정부의 주택 공급량보다 많은 270만 호를 공급할 것이며, 특히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공약대로 공급이 이루어지면 주택 가격은 장기간 하향 안정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의 건설도 현재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민간이 담당하도록 하는 공약은 많은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주택 가격에 따라 공급량이 불확실해질 수 있으며, 또한 주택 공급 가격도 주택 구입자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 시장금리와 주택 가격

정부 정책에 비해
시장금리가
주택 가격에
훨씬 큰 영향

실증 자료는 주택 가격이 시장금리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장금리가 하락 추세를 보이면 실질 주택 가격은 상승하였으며, 하락 폭이 클수록 주택 가격의 상승률은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 국고채 시장금리가 2% 전후로 하락한 2015년 이후부터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최저금리를 기록한 2021년 말까지 주택 가격은 기록적으로 상승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주택의 급격한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하여 다주택자 증과세, 투기과열지구 지정,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강화 등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지만, 시장에서는 모두 실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의 외환위기와 2000년대 초반의 신용불량 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는 시장금리가 급격히 상승하여 주택 구입자

의 차입 부담은 매우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실질 주택 가격은 하락하였다. 그러나 특이한 사항은 시장금리의 상승과 하락에 따른 주택 가격의 민감도는 서로 다르며, 시장금리 하락 시점에서는 가격 민감도가 더욱 커진다는 점이다. 즉, 시장금리 하락 시점의 가격 상승 폭은 시장금리 상승 시점의 가격 하락 폭보다 크게 나타나 하방경직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장금리에 따른 주택 가격의 비대칭 민감도가 존재하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이나 규제, 금융 정책 등에 비해 시장금리가 주택 가격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주택의 투자자산 속성

우리나라에서 주택 수요자 대부분은 주택의 투자 가치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금융투자협회가 2022년 8월에 발표한 ‘2022 주요국 가계금융자산 비교’에서는 2021년 미국과 일본의 가계 자산 중 금융자산은 각각 72%와 6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포함한 비금융자산이 가계 자산 중 64%를 차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통계청의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비금융자산의 94%와 59%가 각각 부동산과 거주 주택임을 보여주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람이 주택을 주거 수단 이외에 투자 대상 자산으로 크게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택이 중요 투자자산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부동산 불패 신화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많은 사람은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일시적 기간을 제외하고 주택의 수익성이 다른 자산에 비해 매우 탁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많은 자산은 가격의 하락이 지속되는 경우 대량으로 시장에서 자산을 매각하는 투매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주택은 이들 자산과는 달리 가격 하락이 발생하더라도 시장 거래량이 감소한다. 주택 소유자는 언젠가 주택 가격이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로 인해 싼 가격에 매물을 내놓지 않으며, 수요자 입장에서는 향후 높은 자본차익을 얻기 위해 주택 가격의 저점을 찾아 기다리기 때문이다. 즉, 주택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미래의 주택 가격이 상승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케인즈(J. M. Keynes)의 ‘미인 선발 대회’ 비유와 마찬가지로 투자자산 시장에서는 내가 아니라 시장이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느냐가 가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세일러(R. Thaler)와 바베리스(N. Barberis)는 주식시장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을
주거 수단 이외에
투자 대상 자산으로
인식

부동산 불패 신화에
대한 믿음

주가가 적정 수준보다 높다고 판단하더라도 투자자가 쉽게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잉반응이 장기간 유지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많은 사람은 주택 가격이 소득 수준이나 수익창출 능력에 비해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다른 시장참가자가 여전히 향후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주택을 매입하려고 한다.

∴ 주택 정책의 방향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주택 정책이 정부 교체와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일관된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야 한다. 정부의 형태와 시장 상황에 따라 소폭의 조정을 할 수 있지만, 주택 수요자가 정부에 따라 주택의 자본차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관된 정책이
계속될수록
주택의 투기적 수요가
줄어들 전망

주택 경기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성장 측면보다 부의 불평등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정도로 빈부격차는 커다란 사회적 문제이다.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할 때는 정책 대상의 계층을 명확히 정하여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주택 가격이 하락하거나 상승할 때마다 정책을 변경할 것이 아니라 일관된 신호를 유지하는 주택 정책과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시장에 일관된 신호가 계속될수록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는 크게 줄어들게 된다.

주택의 자본차익이 소득보다 커지면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사이의 부의 불평등은 심화된다. 이러한 불평등은 주택의 위치와 가격에 따라 유주택자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부의 불평등이 커질수록 근로의욕의 상실 발생하며, 한탕주의의 만연, 출생률 저하 등이 나타난다.

정부의 주택 정책 목표는 근로소득이 주택의 자본이득보다 높게 형성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은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더 많다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근로자의 박탈감은 매우 커지고 있으며, 세대와 계층 사이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은 민간 중심이 아니라 공공주택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이미 주택을 중심으로 한 부의 불평등은 개인의 소득으로 주택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2021년 독일 베를린에서는 주택 24만 채를 시에서 강제 수용해 공공임대로 돌려주자는 주민투표를 통과시켰다.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은 주택 가격상승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소득 수준이 낮거나 소외계층의 주거를 위협할 수 있다. 정부는 공공임대 정책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해야 하며, 토지의 공영개발을 통해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가 공급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주택 문제 해결에 매우 필요하다.

민간 중심이 아닌
공공주택 중심의
공급 정책이 필요

금리가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따라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금리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시장금리의 변동성이 커지더라도 주택 대출 금리는 일정한 수준으로 고정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주택 매입자의 미래 현금흐름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므로 주택 마련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에 큰 도움을 준다. 금융시장의 변화로 인한 주택 가격의 변화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정부는 금융기관의 주택 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금융 정책을 수립하고, 자산 유동화 시장 등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장기고정금리 대출은 시장금리의 변동에 따른 주택 가격의 변동성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주며, 주택 수요자가 염려하는 주택 가격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도록 해준다. 주택 가격의 불확실성이 제거될수록 근로소득을 통한 주택 마련 노력은 증가하게 된다. 또한 근로소득으로 주거 안정을 갖지 못하는 저소득자나 소외계층, 젊은 세대 등을 위한 정책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이들을 위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은 매우 좋은 정책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주택 대출 금리의
안정화 정책이 필요

다주택을 보유하거나 현금이 많은 가구의 경우 시장금리가 높으면 주택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주택 매입에 많이 참여한다. 정부는 주택 경기의 진작을 위해 이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에서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한 전매제한의 폐지, 청약 요건 강화,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등은 주택 경기를 일시적으로 회복시켰지만 향후 집값의 급등을 초래해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주택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자금 여력이 높은 사람의 시장 진입은 일관되게 제한해야 할 것이다. 

하나로 연결되는 나의 금융 데이터

이 기 흥 연구위원(kihong.lee@hanafn.com)

오픈뱅킹을 시작으로 마이데이터 시행을 거치면서 하나로 연결된 금융 데이터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 하며 금융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금융을 넘어 공공·의료 등 비 금융 데이터까지 확대되는 마이데이터와 다양한 업종 간 제휴로 연결되는 데이터는 향후 소비자 만족도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연결된 데이터의 기업 간 차별성 없는 콘텐츠 제공과 고객 수 증대를 위한 이벤트 치중은 만족도 저해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또한, 지속적인 데이터 연결로 AI 활용에 대한 니즈가 커짐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데이터 품질 및 AI 보안·검증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 오픈뱅킹을 시작으로 마이데이터를 거치면서 금융 소비자 데이터가 하나로 연결

- 2019년 12월 오픈뱅킹 시행으로 한 곳에서 모든 은행의 계좌 조회, 송금 이체 등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면서 금융 소비자 데이터 연결이 시작
 - 오픈뱅킹은 잔액조회, 출금·입금 이체 등 은행 데이터 연결을 시작으로 카드 결제일, 이용금액 등 카드사 및 선불충전금 정보까지 금융 데이터 연결을 확대 중
- 2022년 1월 시행된 마이데이터는 은행뿐만 아니라 금융·공공으로 데이터 연결 범위가 확대되면서 AI·데이터분석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제공 발판이 마련
 - 마이데이터는 오픈뱅킹에서 제공되지 않던 은행의 대출 정보, 보험사의 보험 상품 정보 등을 제공하며 데이터 범위를 은행에서 금융·공공까지 확장
- 향후 금융을 넘어 건강·의료 등 비 금융으로 데이터 범위가 확대될 예정

■ 오픈뱅킹에서 제공하는 주요 제공정보

구분	구분 상세	대표 제공정보
선불 충전금	목록 조회	보유 선불충전금 목록, 명칭, 발행일 등
	연계정보	연계 충전계좌 금융기관명, 충전계좌번호 등
	잔액 조회	충전 잔액, 포인트 적립 잔액 등
카드	거래내역 조회	거래일시, 거래금액, 거래 후 잔액 등
	카드목록	카드사명, 보유카드 수, 카드 번호, 상품명 등
	카드정보 조회	카드구분, 발급일자, 결제은행, 계좌번호 등
은행	청구서 조회	일별 청구금액, 청구년월, 실제 결제일, 사용일시, 이용금액, 사용처 정보 등
	조회	잔액, 거래내역, 계좌실명, 송금인정보
	이체	출금, 입금

자료 : 금융위원회, 재편집

■ 업권별 마이데이터 주요 제공정보

업권	업권별 주요 제공정보
은행	예·적금 계좌 및 거래내역, 대출잔액·금리 및 상환정보 등
보험	주계약·특약사항, 보험료납입내역, 약관대출 잔액·금리 등
금투	주식 매입금액·보유수량·평가금액, 펀드 투자원금·잔액 등
여전	카드결제내역, 청구금액, 포인트 현황,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내역
전자금융	선불충전금 잔액·결제내역, 주문내역(3개 범주화) 등
통신	통신료 납부·청구내역, 소액결제 이용내역 등
공공	국세·관세·지방세 납세증명, 국민·공무원 연금보험료 납부내역 등

자료 : 금융위원회

■ 오픈뱅킹·마이데이터 등으로 연결된 데이터는 소비자 편의성 증진에 크게 기여

- 확대되는 공공 마이데이터는 개인신용대출, 신용카드 등을 신청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행정서류를 직접 구비할 필요가 없어 소비자 편의성 증대에 기여
 - 공공·금융 등 기관 업무시 편의성 증진을 위해 시행한 공공 마이데이터는 '21년 12월 24종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으며 지난 8월 28종을 추가하여 52종으로 확대
- 연결된 데이터는 예·적금, 보험 상품 가입 현황, 주식 보유 현황 등 이용자의 금융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어 소비자 금융 서비스 편의성 증진에 기여
 - '22년 1월 은행 10개, 카드 6개, 금융투자 4개 등 33개 마이데이터 사업자 서비스가 출범하였으며, 이들은 고객 서비스 편의성 증진을 위해 노력 중
- 기업들은 연결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AI·데이터분석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금융 추천 상품 및 소비 습관 개선 등 새로운 서비스 제공에 노력

■ 소비자 편의제고를 위한 데이터 연결은 만족도 제고와 서비스 이용자 증가로 이어짐

- 오픈뱅킹 이용자는 서비스 시행부터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만족도가 여전히 높으며 가입자수도 지속적으로 증가
 - ' 20년 7월 한국금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 이상이 오픈뱅킹 서비스에 만족하였으며, 2년이 지난 ' 22년 9월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에서도 이용자의 70% 이상이 만족하는 것을 확인
 - 오픈뱅킹 가입자 수는 ' 20.6월 약 2천만명에서 ' 21.12월 약 3천만명으로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 또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자 역시 만족도가 높으며 빠르게 가입이 확대 중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이용자 중 70% 이상이 서비스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 21.4월 기준 마이데이터 총 가입자 수는 약 2,600만명

■ 마이데이터 관련 주요 서비스 현황

회사	서비스 내용
신한은행	마이데이터 브랜드인 '머니버스(Moneyverse)'를 출시하여 여러 회사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산·재무 분석, 소비·지출 관리, 개인화 상품 추천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하나은행	하나금융그룹 계열사가 참여하는 마이데이터 공동 브랜드 '하나 합'을 오픈하여 투자 노하우, 은퇴준비, 배당투자 등 손님별 최적화된 콘텐츠 제공
KB국민은행	'KB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오픈하고 '목표챌린지'를 통해 고객별 자산과 지출내역을 분석 및 진단하여 고객에게 금융 목표를 제안하는 등 고객 참여형 콘텐츠 제공
신한카드	AI 종합 자산 큐레이션 서비스인 '신한 My리포트'를 출시하여 AI 기반의 고객분석, 금융 소비생활, 시나리오별 팁과 금융캘린더에 기반한 다양한 알림 피드 제공

자료 : KDB미래전략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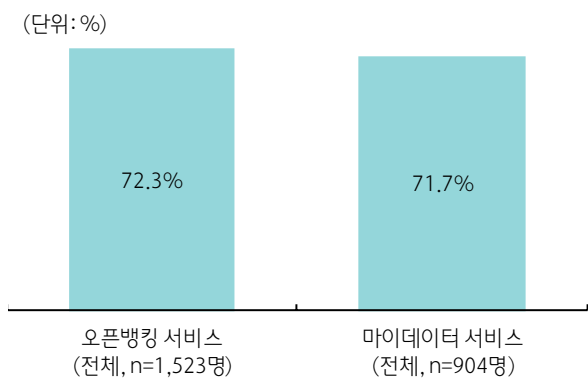
■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금융을 넘어 비 금융 데이터로 확장이 필요

- 소비자는 금융을 넘어 소비·지출, 건강·의료분야 등 비 금융 데이터 연결도 기대
 -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 건강·의료 분야를 가장 기대한다고 응답
- 지난 8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료·공급자에서 사전예방·수요자 중심으로 변하는 패러다임에 맞춰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2023년 3월까지 제공할 예정
 - 본인의 의료데이터(PHR)를 앱 등을 통해 조회·확인이 가능하고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한 기관에 안전하고 간편하게 전송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
- 건강보험공단 3조 4000억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조건 등 국가적으로 보유중인 의료데이터가 연결되면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통한 소비자 만족도 제고가 기대
 -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열람 가능한 의료정보를 최대 120만명으로 제한하면서 소비자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 받을 기회도 제한

■ 기업들은 기업 간 비슷하게 연결된 데이터로 AI-데이터분석을 통해 대동소이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지만 차별화된 데이터 연결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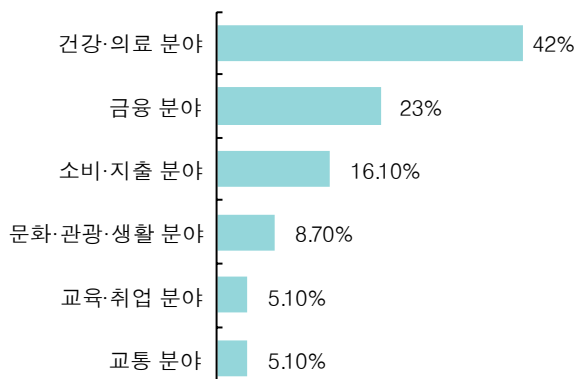
- 은행, 카드, 핀테크 등 다양한 업종에서 자산 조회, 금융상품 추천, 소비 패턴 등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지만 기업들 간 차별화된 콘텐츠는 미미
- 기업들은 연결된 데이터를 통한 콘텐츠 차별화보다 오픈뱅킹·마이데이터 가입시 우대금리, 쿠폰 제공 등을 통해 가입자 수 증대를 위한 이벤트에 치중
- 기업들은 외부데이터(업무제휴 등), 제로파티데이터(손님 취향 정보 등) 등 새로운 데이터 획득을 통해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이 필요
 - NH농협은행은 빗썸코리아와 협업을 통해 실시간으로 가상자산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이용자 서비스 긍정 응답 비중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향후 6개 분야별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대 정도




자료 :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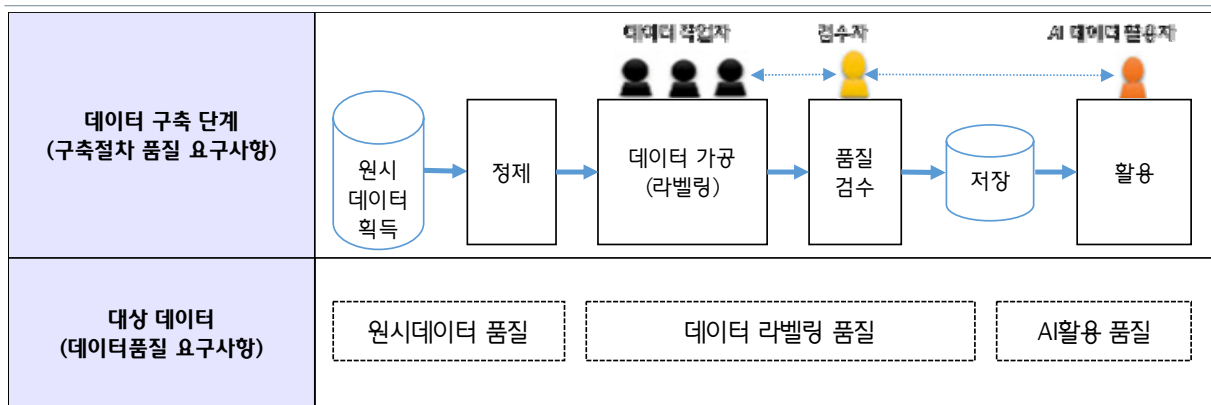
■ 또한, 연결되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AI-데이터분석에 대한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

- AI-데이터분석 결과의 신뢰도 증진 및 성능 향상을 위해 데이터 획득 시점부터 활용을 위해 가공되는 모든 단계마다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
 - ' 20년 과기부는 AI 데이터 관련 품질 개념과 범위, 세부 요구사항 등을 정립한 데이터 품질 표준화에 대한 개발 계획을 발표
 - 지난 8월 과기부는 데이터 품질관리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에 대해 입법예고
 - 특히, 품질 낮은 데이터 사용시 잘못된 AI 결과 도출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AI 의사결정에 대한 검증도 필요
 - AI의 단점인 블랙박스 모형을 설명하는 XAI(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로 AI 생성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
- ※ XAI는 인간이 AI의 작용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에 설명 능력을 부여함으로써 AI 결정에 대한 신뢰와 편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기술

■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연결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보보호·보안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 2021년 과기부는 데이터 보호 기술 향상을 위해 ‘기술 개발 로드맵’을 발표’
 - ' 21년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미국 > 유럽(+0.6년) > 한국(+1.1년) = 중국 > 일본(+1.8년) 순으로 기술격차가 존재
- AI 활용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AI 결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증 절차 도입, AI에 의한 정보 유출 보안사고 방지책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
 - 지난 8월 금융감독원에서 “신뢰받는 AI 활용 환경 구축”을 위해 ① 금융 AI 테스트베드 구축, ② AI 기반 신용평가모형 검증체계 마련, ③ AI 보안성 검증체계 구축에 대해 논의 

■ AI 데이터 품질 개념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왓 위민 원트? 여성 전용 은행의 등장

윤 선 영 연구위원(sunny@hanafn.com)

경제 소비 주체로서 여성의 지위가 강화됨에 따라 쉬코노미(She+Economy)의 영향력은 유통이나 패션·뷰티 산업뿐 아니라 금융권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미국 내 First Women's Bank라는 첫 여성 전용 은행이 설립돼 여성 주체의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정도이다. 금융사는 여성을 위한 재정적 포용이나 단발성 이벤트보다 그들의 경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유기적 금융 플랜을 지원함으로써 장기적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여성의 경제 주도권이 강화되고 금융 투자 등의 참여가 증가하면서 쉬코노미¹⁾ 강세

- 약 10년 뒤 신혼 중산층의 절반 이상이 여성일 것이라는 미래학자 마우로 기옌의 전망과 함께 최근 금융투자에 여성들의 참여가 급속히 확대
 - 여성 주식 투자자 수는 5년 전보다 2배 늘고, '22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이용자 중 여성 비율은 전년 대비 2.3배 증가해 40.2%를 차지²⁾
- 여성은 금융기관과 로열티를 형성하며 상품 및 채널 이용에 더 적극적
 - बैं킹앱 이용자의 남 녀 비중은 44 vs. 56으로 여성 소비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최근 1년 내 금융기관·상품의 신규거래 역시 상대적으로 여성이 더 활발
 - 주거래은행의 만족 응답률은 여성 77%로 남성보다 4%p 높고, 거래 금융기관의 이탈/감소 의향은 반대로 여성이 더 낮아 기관과 더 강한 로열티 형성

■ 여전히 금융시장에서 여성의 불평등 존재하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금융업계 노력 강화

-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UN여성기구와 젠더 관점의 투자(Gender lens investing) 증진을 위한 MOU를 체결해 여성 경제활동 지원의 펀드 론칭 계획
- 해외 주요 은행은 여성 경제 지원 및 ESG경영 실천을 위한 여성 고용 확대
 - Wells Fargo는 Connect to More(1995~) 서비스를 통해 여성 사업가 코칭을 비롯한 네트워킹 형성, 비즈니스 기술 지원 및 펀드 조성 등 지원 방법과 범위를 확대
 - BOA는 여성 비즈니스 투자 확대뿐 아니라 글로벌 직원의 50% 이상이 여성일만큼 여성 고용을 확대하고, Emerging Program으로 여성 취업자를 육성, 코넬대와 협력한 Institute for Women's Entrepreneurship을 통해 여성 기업가에게 전문 학습 기회를 제공

[1] 쉬코노미란 She+Economy의 합성어로 여성이 경제 주체로 나서는 '여성 경제'를 의미하는 용어, NAVER 시사상식사전


[2] 자료. 예탁결제원(2021.4), 빗썸 거래소(2022.5) 기사 보도 자료

- 미국 내 처음으로 여성이 설립·소유·운영하는 First Women's Bank는 여성의 경제적 위상 강화가 주요 목적
 - 자본 접근의 성 평등 솔루션 제공, 개인 저축과 여성 기업 지원을 연계한 상생 추구, FWB Collective 커뮤니티를 통한 여성 맞춤 교육/ 멘토링 등 네트워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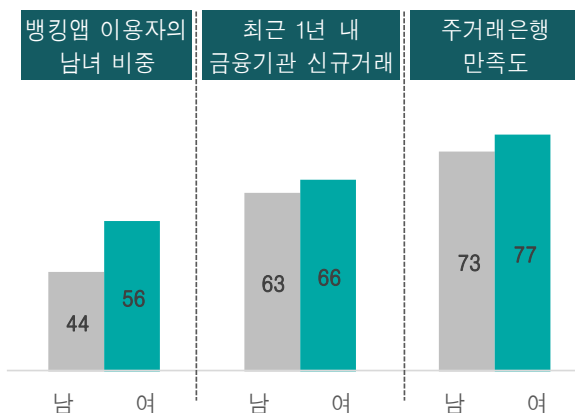
■ 여성에 맞춤 금융을 제공하기 위한 세분화 및 여성 특화 기술 발달

- 여성을 세분화한 금융 지원 및 여성의 관심을 고려한 맞춤 솔루션 제공
 - 미국 Zions Bank는 직장여성/창업가뿐 아니라 퇴직여성, 성피해 여성, 소수민족 여성 세분화된 특정 타깃을 위한 커뮤니티 투자와 맞춤 정보를 제공
 - Royal Bank of Scotland는 여성의 관여가 높은 재정관리, 여행, 주택 관리, 가족, 간병, 가정 학습 등 상황별 니즈에 맞는 금융 정보 및 맞춤 서비스를 제안
- 여성의 건강 주기를 고려한 신체·심리 관리 기술인 핼테크(Female+Technology) 발전, 향후 금융 산업과의 융합·고도화 전망
 - Global Market Insight에 따르면 여성 생애주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월/폐경, 난임, 갱년기 정신건강 관리 등의 글로벌 핼테크 시장 규모는 연 평균 16% 성장

■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지속적 활동뿐 아니라 여성의 생애주기 및 금융니즈 특징을 고려한 맞춤 솔루션 제공으로 관리 체감력을 높이고 장기적 관계를 구축할 필요

- DBR의 제안처럼 여성 소비자의 경제 상황 및 라이프스타일 등을 고려한 여성 세분화 필요, 그에 따른 맞춤 금융서비스로 관리 체감력 향상
- 여성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 상태, 관심사 등을 고려해 맞춤형 금융 플랜을 수립하고 유기적으로 관리·지원함으로써 장기적 관계 형성, 거래 활성화 유도 

■ 성별에 따른 금융거래 특징(%)



자료. 1)Mobile Index '22.8' 뱅킹앱 이용자39,127,858명의 남녀 비중
2)하나금융경영연구소(n=5,000)
3)Deloitte insights(n=17,100)

■ 여성 소비자 5가지 유형



자료. DBR(DongA Business Review)

지구가 유일한 주주가 된 기업

황 선 경 수석연구원(skhwang@hanafn.com)

최근 글로벌 아웃도어브랜드 파타고니아 창업주 일가가 소유한 지분 전체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비영리 재단에 기부하고 “이제 파타고니아의 유일한 주주는 지구입니다”라고 선언했다. 이러한 의사결정의 배경에는 기업의 환경 철학을 보존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있으며 이는 최근 기업들이 마케팅을 위해 단편적으로 ESG를 활용하며 워싱우려를 낚는 것과 대조적이다. 기업은 소비자의 ESG 워싱 우려 해소를 위해 기업의 경영철학에 기반한 ESG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파타고니아는 4조원 규모의 회사 지분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비영리 재단에 기부¹⁾

- 파타고니아 창업주이자 회장인 이본 쉬나드(84)는 지난 8월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호를 위해 자신은 물론 배우자와 두 자녀가 소유한 지분 100%를 기부
 - 의결권주(2%)는 기업가치 보호를 위한 파타고니아 목적 신탁(Patagonia Purpose Trust)으로, 무의결권주(98%)는 환경위기 대응과 자연보호를 위해 설립한 비영리 재단 홀드패스트 컬렉티브(Holdfast Collective)에게 양도
 - 홀드패스트 컬렉티브는 파타고니아 지분 소유에 따른 모든 배당금을 환경 위기 해결을 위한 활동과 지역 사회 활성화, 생물 다양성 보전, 자연 보호 등에 사용
- 지분 기부에 따른 세금 1,750만 달러도 직접 납부하였으며 쉬나드 일가는 향후 이사회 멤버로서 리더십을 선출하고 감독하는 신탁의 운영을 보조
 - 쉬나드 회장은 "이번 결정이 소수의 부자와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로 귀결되는 것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가 형성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언

■ '공개기업(going public)' 대신 '목적기업(going purpose)'이 되어 기업의 환경 철학을 보존


- 파타고니아는 1973년 환경보호에 대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이래 목적은 지구, 사업은 수단이라는 경영 철학을 지속적으로 실천
 - 적자가 나더라도 지구세(earth tax)라는 명목으로 매년 매출의 1%는 전 세계 환경단체에 기부하고 있으며 제품 생산에 친환경, 유기농 재료만 사용
- 쉬나드 회장은 기업 공개나 지분매각 권유에 파타고니아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사회·환경적 가치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거부 의사를 표현
 - 상장 후 새 소유주가 파타고니아가 추구해 온 가치를 변함없이 추구할지 알 수 없고 단기이익을 우선시하게 돼 환경보호와 직원복지가 뒤로 밀릴 수 있기 때문

[1] "Patagonia Founder Gives Away the Company", nytimes, 2022.9.14

■ 최근 기업들이 마케팅 수단으로 ESG를 활용하며 워싱우려를 낚는 것과 대조적 모습

- 그린워싱(Green Washing) 논란은 주로 소비촉진이 불가피한 패션산업과 식음료산업을 중심으로 친환경 실천을 과장하면서 발생
 - (스타벅스) 50주년 기념으로 리유저블컵 증정 행사를 열었으나 컵 소재가 플라스틱이라는 점에서 행사 취지가 흐려진다는 비판을 받음
 - (H&M) 의류제품에 친환경 재료가 50% 이상 포함된 컨시어스 라인을 출시했으나 환경단체의 실측결과와 공개된 정보가 불일치해 워싱 논란 초래
- 금융산업에서도 막대한 자금이 ESG 금융시장으로 유입되자 단기 성과를 위한 워싱 사례가 증가하면서 관련 규제가 강화
 - (BNY멜론 투자자문사) 美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허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정보를 기재한 혐의로 벌금 150만달러(약 18억원)를 부과 받음
 - (HSBC) 영국 광고표준위원회는 HSBC의 기후관련 광고가 소비자들을 오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린워싱 예비판정을 내림

■ ESG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전환을 위해 기업은 경영 철학에 기반한 ESG전략을 수립할 필요

- 국내 금융그룹들도 ESG에 대한 소비자와 투자자의 요구가 강해지면서 임원의 성과 평가에 ESG를 연동하는 등 ESG 구동체계를 강화
 - 4대 금융지주 모두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최근 신한금융그룹은 지주사 및 계열사 대표이사 성과평가에 ESG항목을 추가로 배치
- 워싱 우려를 해소하고 ESG가 지속적으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CEO의 확고한 리더십과 경영철학에 기반한 일관된 전략수립이 뒷받침 되어야 함
 - 금융회사들은 특히 조직 내 단기 성과주의 문화가 팽배해 있어 워싱의 유혹에 빠지기 쉬우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파타고니아 창업주의 서한



Earth is now our only shareholder.

If we have any hope of a thriving planet—much less a business—it is going to take all of us doing what we can with the resources we have.

자료 : 파타고니아 홈페이지

■ 금융회사의 ESG 워싱 사례

금융회사	내용
DWS	전체 운용자산중 50%는 ESG 관련자산 But... ESG 평가 시스템 없는 허위공시로 고발
Vanguard	ESG ETF 운용 확대 But...테크핀 ETF를 ESG로 명칭만 바꿔 출시
Franklin Templeton	ESG 펀드 운용 증가 But...ESG와 무관한 기업에 투자
HSBC	2030까지 1조달러 규모 에너지 효율화 발표 But...2016년 파리협정 이후 화석연료 누적 파이낸싱 글로벌 13위 지적
JP MorganChase	기후변화 대응위해 전체 펀드의 47%에 ESG 반영 But...글로벌 화석연료 파이낸싱 은행순위 1위

자료 : 언론사 종합

금리: 주요국 고강도 긴축으로 한은 빅스텝 불가피

이 화 정 수석연구원(hj_lee89@hanafn.com)

글로벌 금리는 주요국의 긴축기조 강화 및 영국 감세안 등으로 급등하다 영란은행의 시장개입으로 반락했다. 국내금리는 한은 빅스텝 우려 등으로 급등하다 당국의 안정화 조치로 하락 전환했다. 9월 FOMC에서 연준 금리인상 경로가 대폭 상향조정되며 한은의 빅스텝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내외금리차, 원화 약세 등을 고려 시 한은은 10월 빅스텝에 이어 11월 추가 50bp 인상까지 가능할 전망이다. 국내금리는 대내외 통화긴축에도 당국 개입여지가 확대되며 변동성이 제한될 전망이다.

■ 글로벌 금리는 주요국 긴축강화, 영국 정책혼선 등으로 급등하다 당국 개입으로 반락

- 9월 FOMC에서는 3회 연속 자이언트스텝을 단행(목표상단 2.5%→3.25%)하고 금리인상 경로를 큰 폭 상향조정했으며, 파월 의장은 경제 연착륙이 어려울 수도 있으나 물가 안정을 위해 충분히 높은 수준까지 금리를 인상할 의지를 시사
 - 점도표 내 기준금리 전망 중앙값(%), 6월→9월): '22년 3.4→4.4, '23년 3.8→4.6
- 영란은행(BoE)은 빅스텝(1.75%→2.25%)을 단행했으며, 英 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안 발표로 채권시장 혼란이 가중되자 장기국채매입 및 QT연기를 결정
 - 英 2Y 금리는 감세안 발표로 60bp 이상 폭등(4.54%)하다 당국개입 후 하락(4.22%)
 - 한편 스위스(-0.25%→0.75%) 등의 금리인상으로 유럽의 마이너스 금리 시대 종료
- 美 금리는 매파적인 9월 FOMC 결과와 영국의 감세안발 채권시장 불안 등으로 급등했으나, 영란은행의 긴급 시장안정 조치 영향으로 반락
 - 美 국채 2/10년물 금리(%): 9.16일 3.87/3.45 → 26일 4.32/3.88 → 29일 4.17/3.75


■ 국내금리는 대외금리 연동.한은 빅스텝 우려 등으로 급등하다 당국 안정화 조치로 반락

- 연준의 점도표 상향조정으로 한은의 금리인상 경로 상방 압력이 확대된 가운데, 한은 총재도 이에 따른 신규 가이드스 제시 방침을 밝히며 빅스텝 전망이 부상
 - 총재는 큰 내외금리차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빅스텝 가능성을 시사
- 이후 영국 감세안발 글로벌 금리 급등으로 3년물 금리는 2009.10월 이후 최고치, 10년물은 2011.5월래 최고치를 기록(9.26일)했으나, 이후 글로벌 금리가 안정되고 한은(3조원) 및 기재부(2조)의 단순매입 조치와 WGBI 편입 등으로 상승폭 반납
 - 국고 3/10년(%): 9.16일 3.77/3.77 → 26일 4.55/4.34 → 30일 오전 4.26/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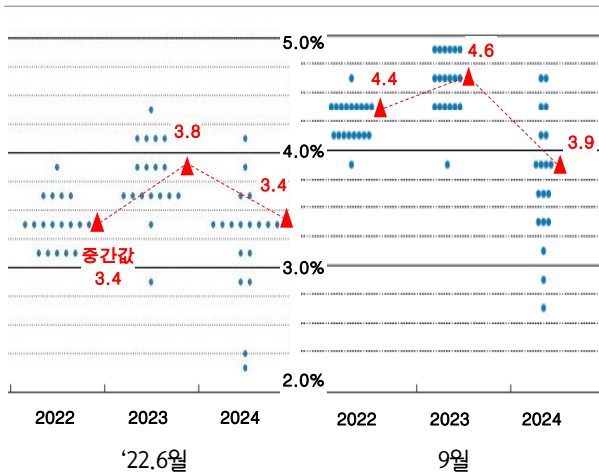
■ 주요국 고강도 긴축에 발맞춘 금리인상 필요성 강화되나, 채무상환부담 등 리스크 확대

- 내외금리차 확대에 따른 자금유출 우려, 원화 약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부담 등으로 한은은 연내 남은 2회 금통위에서 모두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
 - 美 최종 금리수준이 4.75%(11월 75bp, 12월 50bp, 내년 1월 25bp 인상)로 전망되고, 국내 CPI가 내년초까지 5% 지속 예상돼 한은의 금리인상 경로 상방압력 확대
-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와 높은 민간부채로 인한 채무상환부담 가장 위험에도 불구하고, 한은은 물가안정 필요성과 고환율발 악순환 차단을 우선시
 - 민간신용/GDP 비율은 196%(2019년말)에서 221%(2022.2Q)로 급등, 가계대출(2Q 1,870조원) 이자부담은 대출금리가 2021년말 대비 200bp 상승 시 33조→46조
- 한은 총재의 내외금리차 용인 폭(100bp) 언급 등을 감안 시 국내 기준금리는 미국과 100bp 내외 동조화될 전망으로, 고점은 최고 3.75%로 예상
 - 한은은 금년 10월 50bp, 11월 50bp, 2023.1Q 중 25bp씩 추가 금리인상 단행 후 대외 정책기조 및 대내 물가안정 여부를 확인하며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할 전망

■ 국내금리는 대내외 긴축기조 확대에도 당국의 개입여지로 변동폭 제한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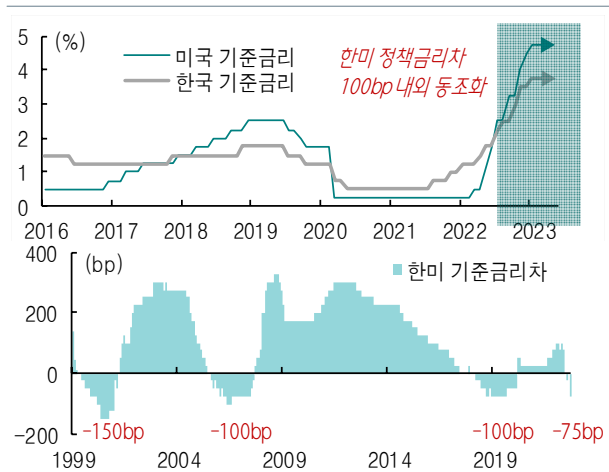
- 美 금리는 주요국 금리인상 기조, 영국발 불안(통화-재정정책 불협화음),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에너지가격 급등 우려 등이 맞물리며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
 - 국제유가 안정 및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에도 8월 근원PCE(예상치 YoY 4.7%, 7월 4.6%)가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 지속 예상
- 국내금리의 경우, 대외 긴축기조와 10월 금통위(10.12일) 빅스텝 가시화 등으로 인한 상방압력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개입여지가 커짐에 따라 변동성 제한될 전망
 - 국고채 3년, 10년 금리는 각각 4.10%~4.40%, 4.15%~4.45% 범위로 전망 

■ 연준 6월 및 9월 점도표 비교



자료 : BLS

■ 한미 기준금리 전망 및 금리차



지력 : Bloomberg,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외환: 시장개입 무력화, 적수가 없는 달러화

오현희 연구위원(hyunheeoh@hanafn.com)

9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이 확실한 긴축 스탠스를 나타내자 달러화는 다시 초강세를 지속했다. 러시아의 동원령 발표로 전쟁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영국의 재정악화 우려로 파운드화가 급락하면서 달러화 강세를 더욱 자극하였다. 9월 중 주요국의 금리인상, 일본과 중국의 외환시장 개입에도 달러화는 초강세를 지속하며 원/달러 환율은 1,440원을 돌파하였다. 달러화 외 통화의 상승압력이 미약한 상황에서 대내외 여건 악화시 원/달러 환율의 추가상승 압력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 [원/달러 환율] 달러 초강세 지속에 위안화 약세가 가세하며 큰 폭으로 상승

- 9월 FOMC에서 연준이 3회 연속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하고 금리인상 경로를 상향하는 등 확실한 금리인상 스탠스를 나타내자 원/달러 환율은 1,400원 돌파
 - 미 기준금리 전망 중앙값(6월→9월, %): '22년 3.4→4.4, '23년 3.8→4.6, '24년 3.4→3.9
- 더욱이 영국 금융시장 불안으로 파운드화가 급락하고 위안화가 금융위기(2008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경신(7.2위안, 9.27일)하면서 원/달러 환율도 1,440원 돌파
- 9월 들어 위험회피 확산 속에 코스피 지수가 11.4% 하락하면서 외국인들이 2.8조 원(코스닥+코스피, 9.1~29일)의 자금을 순매도한 점도 환율 상승압력으로 작용


■ [국제 환율] 미 긴축 강화 움직임, 유럽發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달러화 상승세 확대

- 달러화는 FOMC에서 확인된 긴축 강화 전망, 유로지역의 정치 및 에너지 리스크 확대, 영국 파운드화 급락,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등으로 초강세 지속
 - 달러화 지수는 9월 28일 장중 114.8을 기록하며 2002년 5월 이후 최고치
- 유로화는 러·우 전쟁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영국의 대규모 재정정책 우려로 파운드화 약세가 심화되고 이탈리아 극우정권 출범에 따른 리스크 확대로 급락
 - 9.27일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노드스트림 가스관 누출 사고로 유로화 약세폭 확대
- FOMC의 초긴축에도 22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BOJ가 기존의 완화정책을 고수하자 엔/달러가 급등하였고 외환당국의 달러매도 개입에도 효과는 일시적
- 위안/달러 환율은 중국 공업이익 감소(1~8월 -2.1%) 발표로 경기둔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역내·역외·고시 환율 모두 달러당 7위안(포치: 破七)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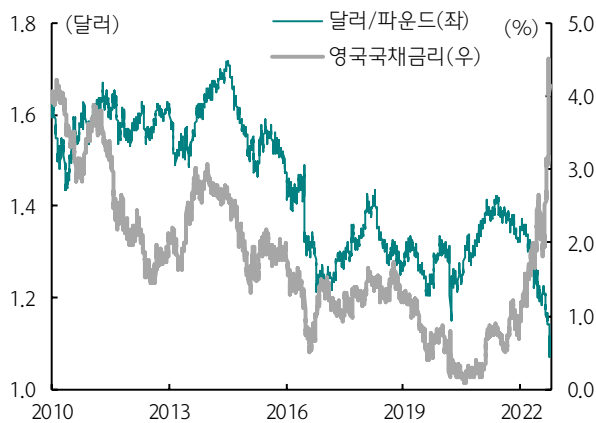
■ 영국 파운드화, 영국 신정부의 지출확대와 감세조치로 인한 재정악화 우려로 급락

- 영국 정부는 9월 23일 경기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요금 지원 등의 재정지출 확대와 성장제고를 위한 개인 및 기업의 조세감면 정책 발표(Growth Plan 2022)
- 에너지 수급불안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를 상회하는 등 인플레이션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로 금융시장 불안 확산
 - 재정지출 재원이 국채발행으로 조달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채금리가 74bp 상승, 파운드화는 4.7% 하락하여 달러화 강세 심화(달러화지수 중 파운드비중은 11.9%)
- 향후 파운드화는 재정·통화정책간 상충으로 정책 신뢰가 훼손되면서 투자자들의 이탈 우려 및 경기침체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 대규모 재정지출이 고물가를 더욱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물가상승 압력에 대응한 BOE의 고강도 긴축정책 단행이 경기침체 가능성을 높일 소지

■ 달러화 강세를 제지할 요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의 상방을 열어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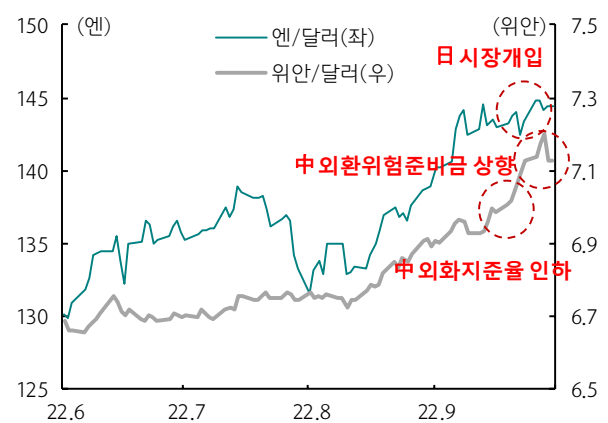
- 9월 중 주요국(스웨덴, 스위스, 영국 등)들의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강세기조가 지속되었으며, 통화약세 방어를 위한 외환당국의 시장개입도 효과가 미미
 - 日 재무성의 엔화 매수 시장개입 단행(9.22일), 中 인민은행의 선물환에 대한 외환위험준비금 비율 상향(9.28일)에도 불구하고 엔화와 위안화의 약세폭 확대
- 연준이 긴축 강화 행보를 지속하는 가운데 일본의 통화완화 기조 유지, 영국발 금융시장 불안 확대, 유로존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달러화 강세 지속 전망
- 대내외 지표 및 여건이 악화될 경우 위험회피가 부각되면서 1,450원 돌파뿐만 아니라 1,500원까지 상단을 열어둘 필요 

■ 달러/파운드화 환율과 영국 국채(10년물)금리 추이



자료 : Bloomberg

■ 최근 일본과 중국의 외환시장 개입과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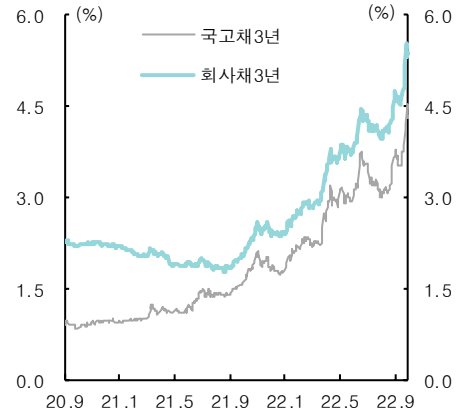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국내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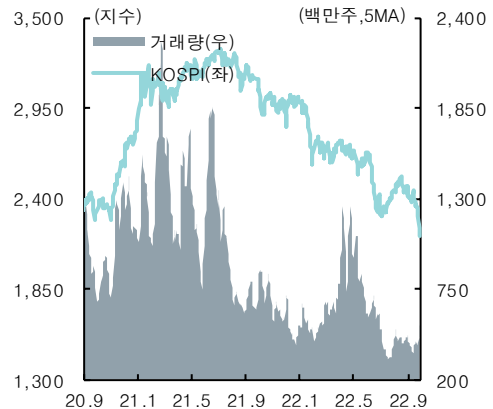
금리

	콜 (1일)	CD (91일)	산금채 (1년)	회사채 (AA-,3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20년말	0.61	0.66	0.90	2.21	0.98	1.34
'21년말	1.44	1.29	1.66	2.42	1.80	2.01
8월말	2.55	2.92	3.67	4.66	3.69	3.78
9월 23일	2.55	3.07	4.06	5.19	4.20	4.19
9월 26일	2.54	3.09	4.33	5.53	4.55	4.56
9월 27일	2.53	3.12	4.21	5.31	4.30	4.35
9월 28일	2.53	3.14	4.31	5.34	4.34	4.37
9월 29일	2.55	3.20	4.32	5.38	4.30	4.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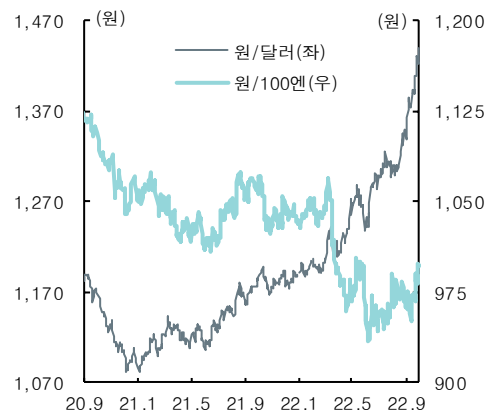
주가

	KOSPI	거래대금 (억원)	거래량 (백만주)	외인순매수 (억원)
'20년말	2,873.5	179,289	1,074	2,494
'21년말	2,977.7	87,275	461	-2,184
8월말	2,472.1	95,626	436	7,453
9월 23일	2,290.0	74,168	446	-1,944
9월 26일	2,220.9	94,618	622	-34
9월 27일	2,223.9	80,056	488	-2,463
9월 28일	2,169.3	92,083	596	-1,460
9월 29일	2,170.9	72,407	509	2,209



환율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20년말	1,086.3	1,052.0	166.3	1,327.0
'21년말	1,188.8	1,032.8	187.1	1,352.4
8월말	1,337.6	962.5	194.1	1,344.5
9월 23일	1,409.3	983.1	197.7	1,365.4
9월 26일	1,431.3	988.6	200.7	1,374.9
9월 27일	1,421.5	981.6	198.0	1,363.6
9월 28일	1,439.9	998.3	199.9	1,401.7
9월 29일	1,438.9	996.2	201.9	1,4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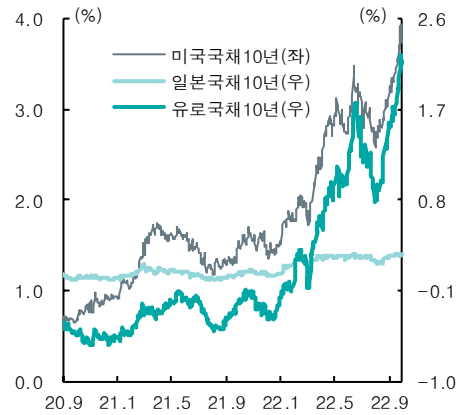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해외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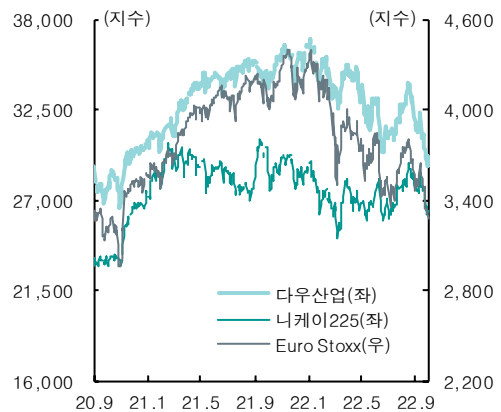
●● 금리

	미국			일본 국채10년	유로 국채10년	
	FFR	리보(3월)	국채2년			
'20년말	0.09	0.24	0.12	0.91	0.02	-0.57
'21년말	0.07	0.21	0.73	1.51	0.07	-0.18
8월말	2.33	3.10	3.49	3.19	0.23	1.54
9월 23일	3.08	3.63	4.20	3.68	0.24	2.02
9월 26일	3.08	3.64	4.34	3.92	0.25	2.12
9월 27일	3.08	3.64	4.28	3.95	0.25	2.23
9월 28일	3.08	3.67	4.13	3.73	0.25	2.12
9월 29일	3.08	3.74	4.19	3.79	0.26	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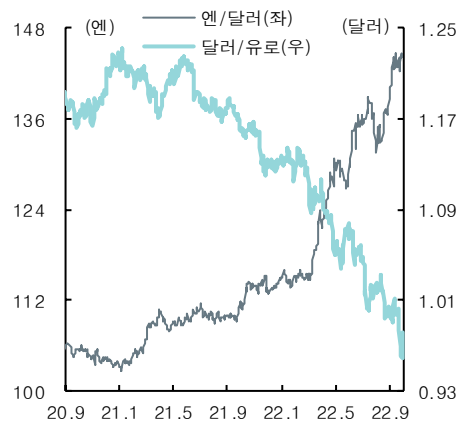
●● 주가

	다우산업	니케이225	상하이종합	Euro Stoxx
'20년말	30,606.5	27,444.2	3,473.1	3,552.6
'21년말	36,338.3	28,791.7	3,639.8	4,298.4
8월말	31,510.4	28,091.5	3,202.1	3,517.3
9월 23일	29,590.4	-	3,088.4	3,348.6
9월 26일	29,260.8	26,431.6	3,051.2	3,342.6
9월 27일	29,135.0	26,571.9	3,093.9	3,328.7
9월 28일	29,683.7	26,174.0	3,045.1	3,335.3
9월 29일	29,225.6	26,422.1	3,041.2	3,279.0



●● 환율/상품

	환율		상품	
	엔/달러	달러/유로	Dubai(\$/배럴)	Gold(\$/온스)
'20년말	103.25	1.222	51.1	1,895.1
'21년말	115.09	1.138	77.2	1,814.1
8월말	138.96	1.005	97.9	1,726.2
9월 23일	143.34	0.969	88.8	1,655.6
9월 26일	144.74	0.961	84.9	1,633.4
9월 27일	144.78	0.959	84.3	1,636.2
9월 28일	144.21	0.974	84.7	1,670.0
9월 29일	144.41	0.982	87.3	1,668.6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하나금융포커스

제12권 20호

등록번호 서울중, 다00037

등록일자 2011년 3월 21일

2022년 10월 1일 인쇄

2022년 10월 4일 발행

발행인 박성호

편집인 김영준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표전화 2002-2200

홈페이지 www.hanaif.re.kr

인쇄 (주)광문당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제12권 20호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el 2002-2200 Fax 2002-2610